

■ 신종 코로나 여파 '협중'정서 확산 / 제주 거주 중국인들 '한숨'

“조심하는건 이해하지만 너무 과해”

중국인 입장금지 팻말 등장·택시 승차 거부 사례도 “좀 더 신중했으면” 호소... 유학생들 “생활고 걱정”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감염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 ‘반중·협중’ 정서가 확산되면서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6일 찾은 제주시 연동은 신종 코로나와 무사증 제도 일시 중지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길가 곳곳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중국인 금지’ 문구가 쓰여 있는 팻말을 입구에 부착한 가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가게에 중국인들이 있으면 자주 쳐다보거나, 들어오다가 되돌아나가는 손님들도 발생하고 있어 중국인 금지라는 팻말을 걸게 됐다”며 “지금 같은 불경기에 기존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산동성 출신인 A(33·여)씨는 “최근 신제주 상권을 중심으로 ‘중국인 금지’ 내용의 안내문을 내건

가게들을 많이 봤다”며 “평상시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더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중국인 친구는 최근 대형 마트에서 쇼핑 후 택시에 불건을 신고 출발하려는 데 중국말을 하니 기사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다”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유학생들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 충칭시 출신 유학생 B(26·여)씨는 “최근 중국에서 들어오

는 유학생들은 2주정도 격리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 휴업하는 가게들이 늘거나 중국인이라고 해고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 유학생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도 든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최근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가격리와 예방 수칙 등을 잘 지키고 있다”며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혐오감보다는 타지에서 고생하는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가밀집지역 인근 도로가 불법 주차차량으로 점령됐다. 이태윤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주차난 ‘몸살’

공영·공한지 주차장 전무 단속카메라 피해 불법주차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가밀집 지역 인근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제주영어교육도시내 상가 밀집지역 양복 4차선 도로에는 고정식 불법 주차차 단속용 CCTV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차량만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정식 불법 주차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상가건물 뒤편 도로 상황은 달랐다. 상가 뒤편 도로는 차량 2대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양복 2차선 도로였지만, 도로 양쪽으로 불법주차차량이 이뤄지면서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비좁아졌다. 이로 인해 양방향 교행이 불가능했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다른 상가

밀집지역 주변 도로에도 주차차 단속용 CCTV를 피해 온 불법 주차차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처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주택단지 외 상가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차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도시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율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모(55)씨는 “영어교육도시 내 상가밀집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유료주차장 1곳 외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다”며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면 불법 주차차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 내 토지는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 매입은 사실상 어려워 공영주차장 조성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소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공한지 주차장 제도가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위기에 빛나는 온정 마스크·구입비용 기부 자원봉사 참여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제주 출신의 선원이라고 밝힌 인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취약 계층에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구입해 전달해 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같은날 제주청년콘텐츠협동조합(대표 강한철)에서도 성인용 일반마스크 2000개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에 제주도는 전달 받은 100만원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마스크 2000개는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 피해시설, 한부모 가족시설 등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주도 간호협회(회장 송월숙)와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희자), 의사회(회장 강지인)는 지난 4일과 5일 공향 발열 감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벌였다. 송은범기자



밭갈이에 바쁜 농촌 6일 제주시 구좌읍 한 밭에서 매밀을 심기위한 밭갈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상국기자

국가와 맞바꾼 땅 알고보니 남의 땅

법원 “국가가 17억 배상”

제주시부경찰서 청사 신축 과정에서 경찰의 잘못된 일처리로 땅을 잃게 된 토지주가 국가 배상을 받는다.

제주시방법원 제2민사부(의의진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시 방경철장은 2006년 11월 제주시부경찰청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청사 부지에 포함된 A씨의 땅 3874㎡를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제주시 예월읍 고성리 소재 토지 6238㎡와 맞교환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가 넘겨 받은 땅이 재판 과정을 통해 기획재정부 소유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 시민은 2016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A씨가 국가로부터 넘겨 받은 고성리 땅이 조상이 자신에게 물려준 것이란 사실을 알게됐고, 이듬해 소송을 통해 이 땅을 A씨로부터 돌려 받았다.

이에 A씨는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경찰청의 잘못된 소유권 이전으로 A씨가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했다. 이상민기자

5·16도로 역주행 음주운전자 적발

5·16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6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5분쯤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인근 5·16도로에서 순찰하던 중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것이 발견됐다. 도자치경찰단은 해당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한 뒤 운전자 A(27)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5%였다. 도자치경찰단은 A씨를 제주동부경찰서에 인계했다. 조상윤기자

가출 청소년 대상 성범죄 40대 실형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40대 남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 B양을 상대로 “잠을 재워주겠다”고 속여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고 같은달 23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달 24일에는 실종 신고된 B양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게 “B양을 차에 태워 목적지에 내려다줬을 뿐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 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양이 A씨의 차에 타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B양을 찾던 중이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을 상대로 자신의 성범죄를 숨기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글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사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감귤 신품종 분양

유라실생(노지, 하우스) 정상착과시 전여부피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지관당 일만원 판매) 의심되는분은 전화주시면 노지 하우스재매 하는 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미니향 아마나스 · 제라몬(레몬)

조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사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